

지역민과 융합 문화도시 미래...예술에 삶 녹여 공감 얻어야



나오시마의 이에(家)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카도야'는 현대미술가 마야지마 타츠오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후쿠다케재단 제공>



최근 준공된 광주 폴리 II 작품 중 하나인 '기억의 상자'는 시민들의 추억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박스로 구성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6 문화수도 광주의 과제

왜 문화인가. 역사와 예술, 생활에 기반하는 문화는 곧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문화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와 연결됨과 동시에 생태, 교육, 산업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 문화예술로 눈을 돌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광주는 새로운 문화생태계가 형성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2월 착공한 이후 10여 년 만에 완공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거는 광주시와 시민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수도'를 주창해 왔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화적 토양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날개'를 달아줄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비엔날레, 광주 폴리, 광주대인예술시장 등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예술섬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에서 인상적이었

하는데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또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기대'가 크다. 1·2차 폴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폴리를 광주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나오시마 예술섬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쿠다케재단 겐지로 가네시로 부대표는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삶 등과 예술이 잘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프로젝트 등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서포터로 참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문래예술촌과 광주 대인예술시장은 닮은 점이 너무 많다. 문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이 예술가들과 호흡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자발적으로 찾아든 예술가들이 지역의 주민, 상인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래동에 있는 '태양 파이프' '신성정밀' '삼원로 다리 연마' 등 수많은 철공소와 작가들의 그라피티 등 예술작품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비릿한 생선냄새를 풍기는 대인예술시장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단순한 창작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고 삶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인예술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작가와 상인, 작가와 문화 기관의 시각차 때문이다. 대인예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오르는 작업실 임대료, 작가들을 이방으로 바라보는 상인들의 시선, 작가들의 참여가 배제된 대인시장 문화사업 등이 그 사례다. 지자체와 문화기관이 대인예술시장을 만든 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래예술촌에는 지난 2010년 문래예술공장이 들어섰다.

광주 폴리·비엔날레·대인예술시장 예술로 소통 대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해 도심 재생을 '이에 프로젝트'·서울 '문래 예술촌' 모범 사례

던 것 중 하나가 이에(家), 즉 빈집 프로젝트였다. 오래된 집들을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이에 프로젝트는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예술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에 프로젝트는 1997년 한 주민이 나오시마 주민센터에 자신의 오래된 집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나오시마는 이를 단순히 예술작품으로 개조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작품에 참여 시켰다.

이에 프로젝트 제1호 작품인 '카도야'가 대표적이다. 현대 예술가인 '미야지마 타츠오'와 5~95세 이르는 나오시마 주민들이 작품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각자가 세팅한 전자 타이머를 작품 곳곳에 배치하고, 작가는 타이머마다 증명서를 만들어 사인을 한 뒤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6년 동안 만들어진 이에 프로젝트 작품들은 모두 7개다. 모든 작품들에 주민들이 작가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작품 설계, 제작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주민들은 현재도 작품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광주 도심 재생을 위해 설치하기 시작한 광주 폴리도 국내에서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1년 만들어진 1차 폴리 11개 작품과 함께 최근 준공된 2차 폴리 8개 작품 등 모두 19개 작품이 광주 곳곳에 설치됐다.

광주 폴리는 모두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펌 물하스, 아이 웨이웨이, 승효상, 서도호 등 세계적인 건축가와 유명작가들이 참여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폴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폴리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최근 준공된 2차 폴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

문래예술공장은 서울 문화재단이 문래예술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다목적 발표장, 공연장, 전시실, 공동 작업실 등을 갖춘 문래예술공장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힘을 실었다. 작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물레아트페스티벌'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문래예술촌을 성장시키고 있다.

나오시마에서 3년 마다 열리는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와 광주비엔날레도 닮은 점이 많다. 올해 2회째 행사를 치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는 최근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세계 각국에서 불러들인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꾸민다. 고령의 노인들까지 작가로 참여하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기타가와 프람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총괄감독은 "광주비엔날레를 직접 본 결과 지역주민의 호응이 너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주민들에게 동떨어진 현대미술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문화적 토양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민과 예술가, 지자체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가나자와, 나오시마 등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 도시들도 긴 세월동안 꾸준한 논의를 거쳐가며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었다. 현재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스티키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 문화적 인프라를 성장시키고 있다.

광주도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와 주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다면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끝>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성역 | 광송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